

언제부터인지 아침 출근 시 습관이다. 동전 600원으로부터의 시작이다. 필자는 가까운 전철역 앞에서 조간신문 하나를 사들고 차 안에서 읽어보는 즐거움이 하루의 출발이 되었다.

ABC 발표에 의하면 광주전남은 13개 신문사가 약 20만부 정도를 인쇄하고 있다. 한 부에 월정 구독료 1만원에 광고, 기자수입이 뉴스를 보급하고 벌어들이는 돈의 전부다. 유가지나 실 구독자수가 얼마인가는 알 수 없는 신문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모든 신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경영 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독자의 입장에서도 무척 불행한 일이다.

#### 코앞에 다가온 소셜 뉴스시대

80년대까지의 전문조판공에 의한 식자 방식, 90년대의 CTS, 2000년대의 인터넷에 의한 실시간서비스에 이어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를 넘어서 소셜 뉴스시대가 온다. 뉴스와 광고의 구분이 없어지고 뉴스공급자와 사용자의 구분도 모호해지며 누가 매체인지의 개념조차도 불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스미디어의 혁명이라 말로도 부족하다. 이것은 하극상처럼 체제의 혼란이다. 신문

#### 전매광장



#### 문정기

광주·전남과총부회장

## 이 시대의 신문 어디로 가야 하나

만이 아니고 TV도, 일반방송도 모두 주인 자리를 내놓아야 할 지경이다.

한때 공학자만이 쓰던 스마트기기를 이 달 들어 한국인 1,500만명이, 을 12월이면 3,000만대가 보급될 거라 한다. 국민 모두가 문지르고, 부비고… 스마트리더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뉴스미디어의 경쟁대상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를 전 가입자 30%만 추정하더라도 현재 적어도 450만의 주파수 없는 방송국과 신문기자, 공짜 구독자와 시청자가 전통 미디어 앞에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길 수 없는 강적이다.

아주 간단한 예를 보자. 최근 K-POP으로 잘 알려진 빅뱅은 미국에서 10일 만에 세계 인기노래 순위 3위에, 카라는 2주 만

에 일본에서 1위가 됐다. 빅뱅의 경우 TV/신문/방송은 물론 사진 한 장도 없었으며 카라는 단 한번의 홍보 쇼도 없었다. 답은 보다 간단하다. 스마트 기기와 함께 스마트한 운영방법이 동원된 것.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홍보 매체가 된 것이다. 적어도 이 무대에서는 신문이 완전히 빠져 있다. 한 마디로 들어갈 틈이 없다. 지난 4·27 보궐선거 역시 이 어마어마한 주파수 없는 방송국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방법 무제한, 대상 무제한, 시간/공간 무제한 등등… 기준 언론매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계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종의 새로운 문화와의 충돌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년 추석의 물난리, 부산호

텔의 홍재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이토록 물질문명이 문화를 리드하는 21세기에 100만이 넘는 그 숫자는 이미 새로운 문화를 말함이다.

#### 온오프 동시경영 변화 피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신문사 경영진이라는 기정 하에 한두 가지를 제안해 본다. 우선 온/오프 동시상영이다. 과거의 일방적 푸시 형태로부터 상호교환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만남과 감성이 있는 인간중심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과정에서 분점으로, 폐쇄시스템에서 개방시스템으로, 사건 중심에서 감성중심으로.

중앙지, 유명제호를 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번 불러보자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지방지나 중앙지나 차이가 없어졌고 메이저나 비 메이저도 없어지니 가능한 얘기다. 비싼 윤전기나 HD카메라, 보급소 운영의 경쟁이 적어지니 경쟁력도 갖추게 된다. 또 긍정적 가정 중의 중요한 것 하나는 신문을 포함한 전통매체는 여전히 중요해 자리는 작지만 계속 유지되리라는 점이다. 전문언론인, 배급망, 보도준칙 등 출판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문사가 변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도이다.

#### 기고



#### 이영로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 알고 사용해야 할 도로명주소 고시

를 실시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도로명주소 압부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20일 까지 도로명주소 고지문 96만여 건과 도로명 흥보용 안내도를 제작하여 건축물 등의 점·소유자에게 배부하였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법적사항으로 공무원·통장 등 2,600여명이 2회 이상 방문하여 고지대상자 명부에 날인을 받고 고지하였다. 또 몇 회에 거쳐 방문하였으나 장기자 및 영업장 이전 등 점·소유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서면고지를 실시하였으며 반송분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함으로서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체계이다. 지번주소의 토지이동에 따른 변경으로 순차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었다. 예를 들어, 어느 곳에 도로가 개설되면 주 도로구간의 도로명으로부터 '몇 번길' 등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찾아 가기 쉽고 위치를 알려주기 쉽도록 만들어야 있다.

이처럼 도로망 구성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고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와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고지 기간 중에 도로명주소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등을 검색하면, 새주소 안내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이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자기 집 또는 직장 등의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 고시와 동시에 법정 효력을 발생하고 개인 및 관공서 등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 할 주소이다. 국민의 이해를 높이 위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2013년 12월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지만,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전선을 말거나 뚫어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적 저항이 발생해 핵선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삼가해야 하고, 냉방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낡았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소리치고 싶을 때, 혹은 기분이 좋을 때 찾는 노래연습장이 관계자들의 높은 안전의식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독자광장

#### 여름철 노래연습장 화재 주의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노래연습장과 같이 영상기계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최근 5년간 전남 화재 통계를 보면 총 9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68건(71%)이 7·8월 여름철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노래연습장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습기 및 향풍기기를 가동해 습기를 수시로 제거하고, 영상기기의 내부습기와 먼지제거 및 누전차단기 등 자동재어장치 이상 유무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해야 한다.

둘째, 전선을 말거나 뚫어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적 저항이 발생해 핵선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삼가해야 하고, 냉방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낡았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소리치고 싶을 때, 혹은 기분이 좋을 때 찾는 노래연습장이 관계자들의 높은 안전의식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광주소방서장 박달호

- 6. 레이크 헬스에 와서 레이크 사이드 나고 묻는다.
- 7.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보고 가격이 얼마나고 묻는다.
- 8. 헤어크림을 얼굴에 잘 바른다.

#### 골프 치매 초기 증상

1. 그늘집에 모자를 놓고 나오기 일쑤다.
2. 화장실을 남녀 구별 못하고 들어간다.
3. 카카 번호를 깨먹는다.
4. 태순을 잘 모른다.
5. 몇 타 쳤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6. “오른쪽이 맞지?”하고는 왼쪽으로 친다.
7. 엉뚱한 짓대를 향해 힘껏 친다.
8. 파3窟은 헐에서 드라이버를 빼든다.
9. 세컨드 샷을 남의 공으로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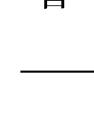
#### 골프 치매 증기 증상

1. 회원이면서 비회원란에 이름을 기재한다.
2. 그늘집에서 오리 알을 달걀이라고 우긴다.
3. 샤워 후 ‘두발용’ 기름을 두 발에다 바른다.
4. 주중에 운동하면서 “주말 날씨 참 좋다”고 한다.
5. 다른 사람의 팬티를 입고 나온다.

- 20대 : 아잉~왜 그래~아까 했잖아 좀 자제하자 우리
- 30대 : 자기도 참, 부끄럽잖아요
- 40대 : 이 양반이 뭐 잘못 먹었나? 설거지나 좀 해요.

전남매일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독자광장'은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시를 실는 자리입니다. 굳이 전문가 수준의 좋은 글, 유통한 사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남매일을 독자 여러분의 신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오늘의 운세

- |   |  |
|---|--|
|  | 48년생 지갑이 두둑하니 살맛이 난다. 60년생 일상이 지겨워도 극복해야 한다. 72년생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84년생 반드시 달성하고 야 말겠다는 자세를 가져라.  |
|  | 39년생 과식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51년생 전체적으로 좋은데 조금 불안하다. 63년생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질 계기가 생긴다. 75년생 마음을 먼저 인정시켜야 한다.     |
|  | 42년생 자손들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는다. 54년생 남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날이다. 66년생 전에 표인 일이 드디어 풀린다. 78년생 여려 생각 많고 자기 일이나 하라.   |
|  | 45년생 안보다 밖에서 이익을 찾아보라. 57년생 작은 것 주고 큰 것을 얻는다. 69년생 재출발한다는 자세가 요망된다. 81년생 내 마음이 궁합에 가 있으니 바로 잡아라.   |
|  | 43년생 자주하게 뛰어 다니도록 소득은 작다. 55년생 남의 뒷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67년생 오래 기다리던 문서를 받게 된다. 79년생 사소한 일에도 다행을 조심하라. |
|  | 46년생 자손들을 위해 저축에 힘쓸 것. 58년생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70년생 성공을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라. 82년생 주위로부터 재능을 인정받는다.     |

- 전화 : (062) 720-1075
- 팩스 : (062) 720-1080~82
- 이메일 : jndn@chol.com

7월 28일 (음 6월 28일)

1989년 6월 29일 창간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 발행 · 편집인 申龍浩 편집국장 李斗憲

대표 전화 (062)720-1000 · 구독 신청 및 배달사고 720-1098~99

기사 제보	(062)720-1050~56	사회 2부	(062)720-1043~44	서울 지사	(02)704-2166
F A X	(062)720-1080~82	문화 1부	(062)720-1070~72	F A X	(02)704-2167
논설 실	(062)720-1032	전 산	(062)720-1033	인쇄처	디원 인쇄
정 치 부	(062)720-1060~62	정	(062)720-1040	E-mail	jndn@chol.com
경 제 부	(062)720-1065~67	신	(062)720-1016~17	본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강요를 준수합니다
사 회 부	(062)720-1050~56	집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4-9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 우체국 민원 1300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자원봉사센터 1365
- ▷ YWCA 가정법률상담소 527-0011
- ▷ 인광 알코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가정위탁지원센터 351-1206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 광주종합버스터미널(ARS) 360-8114
- ▷ 철도안내 1544-7788
- ▷ 대한항공 광주공항 942-0111
- ▷ 아시아나 광주공항 941-5511
- ▷ 전국여객선터미널 1544-1114
- ▷ 전남도청 (061)286-2000
- ▷ 광주시청 223-3000
- ▷ 전남대병원 220-6900
- ▷ 조선대병원 220-3114